기획재정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12. 8.(월) 18:30 배포 2025. 12. 8.(월) 17:00

구윤철 부총리, 중앙아 중점 협력국인 우즈벡과 경제협력 과제 포괄적 논의

- 서울에서 '제6차 한-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회의' 개최
- 한-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제협력 등 현안점검 의미 강조
- 양국간 개발협력, 교역·투자·인프라 및 미래지향 협력과제 등 포괄적 논의

한국과 **우즈베키스탄***(이하 우즈벡) 양국은 **12월 8일(월) 서울**에서 「**제6차 한-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**」를 개최하였다. 금번 회의는 **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처음 개최**되는 **경제부총리 회의**이자 **2026년 한-중앙아시아 정상회의**를 앞두고 **양국 부총리**가 **현안점검 및 경제협력 과제를 논의**하는 자리로서 큰 의미를 가졌다.

* 수석대표: 잠시드 압두하키모비치 호자예프(Jamshid Abdukhakimovich Khodjaev) 부총리

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이하 부총리)은 개회사를 통해 **우즈벡**은 **중앙아시아 지역**에서 **한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**로서 양국간 협력은 **개발협력**, **에너지·인프라 분야**를 넘어 **과학기술·보건의료·기후변화 등 미래지향 분야**까지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, 지난 회의시 합의했던 사항들이 **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**은 **매우 의미가 깊다**고 전했다. 앞으로도 **양국 간 협력**이 **상호 호혜적인 관계** 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, **양국 관계**가 **굳건한 협력 파트너로 지속**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논의를 시작하였다.

구윤철 부총리와 호자예프 우즈벡 부총리는 우선 개발협력 분야 논의에서 한국과 우즈벡은 **보건·제약·화학·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**하고 있는 만큼 **앞으로도 협력을 강화**하고, **한국경제발전공유사업**(KSP), **경제혁신 파트너십프로그램**(EIPP) 등 지속적인 사업발굴 및 성과제고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.

교역·투자·인프라 분야에서는 우즈벡의 **WTO 가입지원**, **농산물 수출입 검역 협력** 등 **교역분야 협력**을 **지속**하는 한편, 가시적 성과가 예상되는 **우르겐치 국제공항건설 민관협력사업***(PPP)과 같은 **성공적인 인프라 협력 사업**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고, 또한 **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원활한 활동**을 **지원**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**애로사항 해소** 등 **적극적으로 협조**해 나가기로 하였다.

* 호레즘州 우르겐치 지역 공항건설 사업,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건설공사 및 19년간 운영권을 확보, 최근 우즈벡 정부의 지원협약(GSA) 체결(11.18일), 12월 본계약 예정

아울러, 우리 화학연구원이 참여하여 **2026년 완공예정**인 우즈벡의 **화학연구원**을 **시작**으로 R&D 등 **과학기술 협력**을 **확대**해 나가는 동시에, **지식재산·보건의료·광물자원** 등 **다양한 분야**에서 **양국의 협력**이 **미래지향적으로 발전**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.

※ (참고) 제6차 한-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회의 개회사

담당 부서	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	책임자	과 장	강병중 (044-215-7630)
		담당자	사무관	최재원 (choijw15@korea.kr)
			사무관	이명선 (lms0210@korea.kr)
			사무관	황예진 (yejin1210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 고 **제6차 한-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회의 개회사**

1 인사 말씀

□ 존경하는 **호자예프 부총리님,**
그리고 **우즈베키스탄 대표단 여러분,**
안녕하십니까, 앗살롬 알라이쿰! * 우즈벡어 인사

○ 바쁘신 와중에도 **제6차 한-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**를 위해 방한하여 주신 점에 대해 한국 대표단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.

□ 지난 **2018년 타슈켄트**에서의 **첫 경제부총리 회의**를 시작으로 양국은 쉼 없이 **협력의 결실**을 위해 달려왔습니다.

○ 예측할 수 없는 **국제 정세**의 **불안**과, **코로나19**와 같은 **미증유**의 **국면**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* 귀중한 만남의 장이 벌써 **여섯 번째 자리**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

* 제3차 회의('20.5월, 화상회의), 제4차 회의('21.11월, 서울)

□ 특히, 오늘 **제6차 회의**는 **한국의 새 정부**가 **출범**한 이후 **첫 경제부총리 회의**이기에 의미가 더욱 깊다고 생각합니다.

○ 오늘 이 자리가 **양국 협력의 새로운 장**을 열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.

2 양국 경제협력 성과

□ **1992년 수교**로 처음 손을 맞잡은 양국의 관계는 **지난 30여 년 간 놀라운 성과**를 창출하였습니다.

○ 양국의 굳건한 협력관계 속에 **경제교류**와 **인적교류**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.

○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**5대 교역국***으로 자리매김하였고, 우즈베키스탄 또한 **한국의 가장 중요한 중앙아 지역 협력 파트너****로 발돋움하였습니다.

* 우즈벡의 교역국 중 중국, 러시아, 카자흐스탄, 튀르키예에 이은 5위('24년)

** '24년 對우즈벡 교역액은 17.4억불로 중앙아 5개국 교역액의 23.5%차지

□ 이 과정에서 **지난 다섯차례**의 **경제부총리 회의**는 **경제분야 최고위급 협의체**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.

○ **대외경제협력기금**(EDCF)과 **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**(KSP), **한국국제협력단**(KOICA) 등 **정부·공공 영역**을 통한 협력은 물론

○ 전통적인 **에너지·인프라 분야**를 넘어 **과학기술, 보건의료, 기후변화 분야**까지 꾸준히 그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, **지난 회의**의 **합의사항**들이 **구체적인 성과**를 보이고 있는 점은 **매우 뜻깊은 일**이라 생각합니다.

3 양국 경제협력의 미래

□ 양국의 협력은 **30년을 넘어, 50년, 100년**을 바라보는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.

○ 이를 위해 한국은 **우즈베키스탄**과의 협력이 **상호 호혜적 관계** 속에서 **알찬 결실**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.

□ 양국간의 **정책협력**은 앞으로도 **우즈베키스탄의 경제·사회 발전**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.

○ **EDCF**를 통한 **개발협력**은 **보건, 제약, 화학산업, 교육** 등 폭넓은 분야에서 **우즈베키스탄**의 **발전**을 **지원**하고,

○ **수출금융**과 **KSP, EIPP**(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) 등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.

□ 또한, **에너지·인프라·자원 분야**에서는 그간의 오랜 협업에 이어 그 **성과를 더욱 극대화**해 나갈 것을 희망합니다.

○ 최근 **우르겐치 공항 건설***을 위한 **민관협력사업**(PPP)에서 **성공적인 결과**가 도출된 것은 **양국 인프라 협력**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.

* 호레즘 州 우르겐치 지역 공항 건설 사업,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건설공사 및 19년 간 운영권을 확보, 최근 우즈벡 정부의 지원협약(GSA) 체결(11.18일), 12월 본계약 예정

○ 또한, 에너지·자원 분야에서의 **협력 과정**에서 **기업**들의 **원활한 활동**을 지원하기 위해 **양측 당국**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.

□ 아울러,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향후 양국의 협력 과제가 **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**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

○ 이번 회의에서 **과학기술·ICT, 기후변화, 지식재산 분야** 등 다양한 의제의 협력을 논하게 된 것을 기반으로,

○ 양국이 **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과제**를 발굴해 나가는 데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합니다.

4 마무리 말씀

□ 올해 **한국**의 **경주**에서는 **APEC 정상회의**가 개최되었습니다.

○ 경주는 **고대 왕국 신라**의 수도로 유라시아를 잇는 **실크로드**의 **시작점**이자 **종착점**이었습니다.

○ **실크로드**의 동서를 **연결**하는 **가교**였던 **우즈베키스탄**과 **실크로드**의 **출발점**이었던 **한국**이 오늘날에도 깊은 인연을 이어나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.

□ 오늘날 양국은 **급변하는 국제정세** 속에서 **기술 대전환**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

○ 수 세기를 넘게 이어온 **양국**의 **관계**가 더욱 굳건해져 **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협력 파트너**가 될 수 있도록, **양측**의 **기탄없는 논의**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.